

바이오연료 상용보급회의 9월17일 COEX 개최

산업자원부와 외교통상부는 9월17일 COEX에서 <바이오연료 상용보급을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산자부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연료의 상용보급 1주년을 기념해 개최되는 회의에는 미국과 일본,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주요 국가의 정책담당자들이 바이오연료 개발 경험과 정책동향 등을 발표한다.

또 국내 바이오연료 관련기업과 학계,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국의 바이오연료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대안과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이재훈 산자부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화석연료 대비 경제성 확보 등 바이오연료의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 관심을 약속하고 민간부분의 분발을 당부할 예정이다.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로 대표되는 바이오연료는 교토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이산화탄소 감축 의무화 등의 영향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친환경적 수송용 대체연료로, 한국은 2006년 7월부터 바이오디젤 상용보급을 시작했다.

<화학저널 2007/09/17>